



경북의대 북미주동창회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Inc.**



Chi Heart & Surgery Center

동창회지

2007 Fall Issue

회장 박대선

총무 정인국

詩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세 번째의 봄

이창윤 (64)



은퇴한 친구들은
 [샌디아고]와 [로스앤젤스] 사이에 자리를 잡고
 계절의 바깥 세상을 살고 있다
 계절의 바깥으로 완전히 밀려나기 싫은 사람들은
 북아메리카의 황량한 겨울을 피해
 플로리다로 내려갔다가
 철새들과 함께 돌아온다.



플로리다 중부 시골의 봄은
 오렌지꽃 향기로 잠이 들고
 잠을 깨게 해주었다
 조지아, 태내시, 그리고 켄터키의 봄은
 75번 하이웨이 가에 빨강과 분홍의 레드번
 흰 색의 독우드, 보라 색의 등꽃을 피워놓고
 만리 길 무릉도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생각을
 자주 운전대로 뒤돌려야만 했었다.

음달에는 아직도 겨울이 버리고 간 잔기침 같은
 회썬 회썬 잔설이 남아있는 북미주에 돌아오면
 나는 봄맛이 준비로 바빠진다
 겨울 바람이 떨어뜨려 준
 죽은 나무가지들을 불태우고
 지난 가을 못다 치운 낙엽들을 끌어내고
 정원길을 끼고도는 돌담도
 가지런히 손질을 해야한다
 그리하여 아직도 차가운 봄바람을 물들이는
 수천 송이의 수선화와 크로쿠스
 바라보는 내 눈에 눈물이 피잉 들 때
 봄은 언제나, 어떤 기쁨에도 떠도는
 한잔의 슬픔 같은 것

크랩애플과 벚꽃이 호반을 덮었다가 지면
 노란 새끼들을 한 줄로 새우고
 어미 아비 거위가 앞 뒤를 막으면서
 호수를 해엄쳐다닐 것이고
 어린 것들이 내 팔다리에 매달리던
 그 시절이 한 번 더 그리워질 것이다.



2007년을 보내면서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회장 박대선



친애하는 경북의대 동문 여러분께

지금까지 유난히 온화한 여름과 가을을 지나서, 요즈음 들어서 조석으로 쌀쌀한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통관 제 79호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지를 발간하고 우송함으로써 2007년 집행부 임기를 끝내고저 합니다. 임원진(Executive Officers)과 대의원(House of Delegate)들을 비롯하여 많은 선배, 후배님들께서 저희들 임기 동안 정성껏 도와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회비와 장학금 등을 조속히 송금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성어린 고언과 조언 등으로 원래의 동창회

목적인 사업과 친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차기회장(2008년)인 이재욱동문('69), 차차기회장(2009년) 정윤기동문('69) 께도 끊임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 드립니다.

특히 노재문 선배님('62)께서 힘든 scholarship 위원장 직을 영구히 맡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문 모든 분들께서는 적어도 1년 100불 이상의 장학금을, 각 회계연도의 재무에게 보내드리는 성의를 지속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 8월에 출간되어서 우송되었던 현 이상범 의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의 편지를 참고하시면 모교사정을 더 확실히 아시게 되고 모든 분이 참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상임장학금 (100불 이상/year/person)외에, 모교에 특별장학금 등의

Extra액수를 보내시고 싶으신 분은 Designee을 선정하시면 모교 현 학장단에서 Donor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북미주 동창회 또한 Not for Profit Tax Exempt Status을 이용해서 Tax deductible favor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회지의 편집과 완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이상국('60)선생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동문들과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2007년 11월 회장 박대선('66)

Secretary General's Report

총무 정인국



대의원회 회의록

때; 9월15일 토요일 7:00PM

장소; Isabella Restaurant 회의실

참석자; 박대선, 이상국, 이재욱, 노재문, 김상균, 여용연, 강반, 문정오, 임병우, 강경훈, 최중식, 김상완, 김기춘, 김수용, 이수광, 이영식, 박내홍, 구분철, 정인국

사회;박대선회장

- 1. 정인국 총무의 전회의록을 수정없이 통과.
- 2. 주소록 교정 CD-Rom 200 개 만들어 회비낸 회원 우선적으로 보내주도록 결의함.

3. 한국의 총동창회 김정균 회장의 전 미주 동창회장 4박5일 내한 초청건에 대해 박대선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결의함.

4. 장학분과(노재문); 장학금과 기숙사 건축을 위한 1인 1구좌 제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현재 143명의 미주회원이 장학금을 납부했으며 매달 2,500불을 계속 송금하기로 함. 원활한 장학기금 모금과 지속적인 보조를 위해 노재문 위원장과 계속 장학위원장으로 유임할것을 만장일치로 추대 결정 함.

5. 이상국 위원장의 회지 발행계획과 10월 중순까지 원고부탁이 있었음.

6. 스포츠분과 김상균 동문의 골프대회 보고가 있었음.

7. 문정오 회계의 재무보고 있었음.

현 잔고; \$44,054.06

8. 안해대상에 미주동창회에서 김재호 동문

('59)을 추대하였음.

9. 이재욱 차기회장인사와 구분철 차기 총무와 정병하동문이 골프대회를 맡기로 내정되었음을 발표함.

내년 총회는 Ohio/ Concord에서 8월 중에 모이기로 (8/14/08~8/17/08) 잠정 발표함.

10. Audit 선출; 김상균 동문은 아직 1년 더 유임(2007-2008), 이수광 동문(2008-2009)을 만장일치로 새 Auditor로 선출함.

11. 차기 회장(2009년);워싱턴지역의 정윤기'69 동문을 선출함.

12. 지난 9월 12일 노동일 총장님의 뉴욕방문때, 경북대학교 NY동창회와 의대 동창회의 환영회가 맨하튼 Korea Palace에서 있었음. (Page 8 참조)

13. 회원증 서거시 조위금은 경상비 내에서 회장 재량껏 운용하도록 함.

14. 폐회; 8;30 PM



Treasurer's Report 2007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KPNU School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Period 1/1/07~11/1/07

Prepared by Cheung Oh Moon, M.D., Treasurer

1. General Funds

Income

Balance Forward	\$ 11,482.10
Membership Dues	\$ 17,400.00
Contribution for Alumni Ass.	\$ 2,350.00
Transfer from Convention Fund	\$ 10,353.56
	\$ 41,585.66

Expenses

Back payment for 2006 news letter	\$ 4,100.00
Back Payment for 2006 stamps delivery	\$ 737.00
Delegate Meeting and Activities	\$ 672.55
Membership Directory	\$ 7,757.05
Newsletter	\$ 3,540.00
Ceck Service	\$ 150.00
CPA & NY State Tax	\$ 1,385.00
Aids to Local branches	\$ 2,660.00
Misc.	\$ 85.00
Subtotal	\$ 21,086.60
Balance	\$ 20,499.06

2. Scholarship Fund

Income

Contribution for 2005	\$ 16,755.00
Contribution for 2006	\$ 6,500.00
Special Donation by Drs. Ryo, Ung Yun & Kang, Ban	\$ 20,000.00
Consolidatio from Develop. Fund	\$ 2,800.00
Contribution for 2007	\$ 14,400.00
Subtotal	\$ 60,455.00

Disbursement

KPNU Medical School 2/22/07	\$ 20,000.00
Monthly installment through 10/24/07	\$ 20,000.00
Subtotal	\$ 40,000.00

Balance \$ 20,455.00

Total Balance (1+2) \$ 40,954.06

3. Investment Fund

\$160,115.00

Grand Total (1+2+3)

\$201,069.06

회비 납부 현황

11/1/07 현재

연도	이름	회비	장학회	연도	이름	회비	장학회	연도	이름	회비	장학회	연도	이름	회비	장학회
49	김태훈	100	1,100	50	윤주덕	100	100	50	허규숙	100	100	50	지성해	100	100
50	유춘식	100	100	51	서욱	100	300	53	최재형	100		54	김연호	100	100
57	고석경	100	100	57	정낙진	100	100	57	전성균	100	100	57	김규진	100	100
58	김종구	100	100	59	박의호	100	100	59	강주안	100		59	김재경	100	
59	김재호	100	100	59	양남도	100	100	59	류시홍	100	100	60	남궁원	100	100
60	김두조	100		60	최중식	100	100	60	여병택	100	100	60	강경훈	100	100
	여용연	100	100		이상국	100	100		임병우	100	100		김재환	100	
61	정병락	100	100	61	곽현주	100	100	61	심재훈	100	200	61	김수생	100	100
	조광제	100	100		조홍래	100	100		이만희	100			고우련	100	100
62	박희성	100	100	62	김범주	100	100	62	신현원	100	100	62	박현동	100	
	송희재	100	100		강자구	100	100		손대익	100			지연숙	100	100
	노대식	100	100		노재문	100	100		이관우	100					

Treasurer's Report

회비납부 현황 (계속)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연도	이름	회비	장학회	연도	이름	회비	장학회	연도	이름	회비	장학회	연도	이름	회비	장학회
63	김재찬	100	100	63	정우영	100	100	63	하영재	100	100	63	임정규	100	100
	노인환	100			김경수	100	100		이종만	100	100		안대룡	100	100
	신현찬	100	100		박로종	100	100		유진우	100	100		강반	100	100
	최우명	100	100		이영해	100	100		유상호	100			임병선	100	
	조명래	100	100		배익학	100	200								
64	박희도	100		64	강영창	100		64	이장우	100			구옥현	100	100
	김성용	100			이영남	100			김경현	100	100		이정윤	100	100
	서태준	100			강대명	100	100		이영식	100	100		이창운	100	
	김정환	100	100		오상완	100	100		이재수	100	100		이성수	100	100
	김광환	100	100												
65	이박무	100		65	김영훈	100		65	윤징자	100	100		구자권	100	
	이용웅	100			이명우	100			최대식	100	100		홍래복	100	100
	이수광	100	100		김희훈	100	100		임청	100	100		정광혜	100	100
	김수용	100	100		장문찬	100	100		김한주	100	100		탁원균	100	100
66	정해진	100	100	66	서충원	100	100	66	박내홍	100	100		이정두	100	100
	이재철	100	100		박정태	100	100		이영길	100	100		남상규	100	100
	최준혁	100	100		안정홍	100	100		정근영	100	100		육종윤	100	100
	하재덕	100			이규청	100	100		문정오	100	100		정국	100	100
	김동윤	100	100		박대선	100	1,000		고석정	100	100		권기호	100	100
	이길부	100	100		정호성	100			최인식	100	200		김기춘	100	100
	육정혜	100	100		신인건	100	100		조남제	100	100		최성정	100	
	권석찬	100	100												
67	강백현	100	100	67	정태수	100	100	67	김영철	100	100		김문양	100	100
	이상준	100	100		허련	100	100		김승조	100	100		박순호	100	100
	김영길	100	100		김광준	100	100		황규원	100			최임석	100	100
	노여주	100	100												
68	김주록	100	100	68	최연일	100	200	68	장세찬	100	100		문종천	100	100
	최송자	100	100		박상태	100	100		김병옥	100					
69	이정현	100	100	69	서영수	100	100	69	김동일	100		69	신기동	100	100
	노태영	100	100		정윤기	100	100		이청혜	100	100		유상박	100	100
	이재욱	100	100												
70	백성욱	100	100	70	구본철	100	100	70	김희한	100	100	70	정규용	100	100
	정병하	100	100		손성준	100	100		김상균	100	100				
71	권오갑	100	100	71	이봉기	100	100	72	김태우	100	100	72	정영섭	100	100
72	허재경	100	100	72	김준기	100	100	74	정인국	100	100	87	신재길	100	400
90	박소향	100	100	91	김경미	100	100	93	조명호	100	100				

Membership due ; 17,400.00
 Scholarship due; 17,200.00
Total; 34,600.00

Committee Report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Finance & Investment

정병락 (61)

I am pleased to report our investment at **Vanguard Group** as follow;

As of 10/12/07 ;

Prime Money Mkt Fund ---- \$3,898.00 (2.40%)
 500 Index Fund ----- \$25,417.00(15.90%)
 Growth & Income Fund --- \$130,814.00 (81.70%)

Total : \$ 160,115.00
 (As of 12/31/06 Total : \$144,187.00)
 Gain \$ 15,928.00 (11 %)

Byung R. Chung, M.D.

Chairman, Finance & Investment Committee
 FL tel # : 863-858-8064 Cell : 845-926-7236

Scholarship

노재문 (62)

금년도 장학금 모금총액은.....\$15,500.00

(Development Fund \$1,500 포함)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장학금.....\$23,255.00

(2005 년 및 2006 년도)

이를 합한 장학 기금 총액은.....\$38,755.00

금년도 장학금 지출 내역은:

금년 3월부터 매월 \$2,500 씩, 10월말 현재까지 총 \$20,000
 을 모교에 송금,

현재 남은 잔고는\$18,755.00

**여용년 (60) 및 강반 (63) 동문이 특별 기부한 장학금
 \$20,000은 금년 2월에 전액을 모교에 송금 했습니다.

**지금 우리 모교는 어느 때 보다도 더 절실히 동문 여러분
 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기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재문 (516-365-9474, or drjnoh@optonline.net)

(** *2007년9월 Delegate Meeting시에, 원활하고 정확한 장학
 금 운영을 위해 노재문 장학위원장을 계속 유임하기로 결정
 하였다. LSG)

Bylaws

강경훈 (60)

동창회의 Tax exemption status는 확고하다. 장학금의 송금
 문제등은 by-law에 저촉되지 않는 지금 같은 최선의 방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참고 Page 18)

Membership

이정운 (64)

2007년 7월에 새 회원명부를 발간하였다. Membership Com-
 mittee (이정운, 최종식) 위원과 박대선 회장, 정인국 총무, 문
 정오 재무들의 많은 협조로 update한 명부를 발간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우리들이 최선을 다 하였지만 완벽하다고는 말 할
 수가 없다. 연락이 안되어, update되지 못한 분들에게는 양
 해를 구한다. 그러나 좀더 update 된 Directory를 CD에 담아
 추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각자, 명부의 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그 해의 집행부나 총무
 에게 연락을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Sports, 2008 General Meeting

이재욱 (69)

2008년도 임원은 이재욱(69) 회장과 구분철(70) 총무 및
 Sports 에 정병하(70) 동문으로 결정되었다.

일시; 2008년 8월 14일(목)- 8월17일(일)

장소; **Renaissance Quail Hollow Resort, Painesville, OH**
 Near Cleveland, (Golf Fee 는 \$60-\$70 선으로 예정)

(상세한 내용은 Page 19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Treasurer

문정오 (66)

금년도에도 회비와 장학기금을 납부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
 를 드립니다. 아직도 회비 납부를 혹시 잊고 계신 회원이 있
 으시면 언제라도 회계에게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
 비; \$100.00, 장학기금; \$100.00)

Cheung Oh Moon, M.D.
 965 Huntington Dr.
 Fishkill, NY 12524

Education & Scientific

육정혜('66), 김승조('67)

금년 총회는 많은 훌륭한 연사들이 도움이 되는 Lec-
 ture를 해 주시고 많은 동창들이 또한 Attend하여 성황
 을 이루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부 동창회 소식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시카고 지부

회장; 이영식
총무; 이수광

동창회 이사회

- 1) 시일 ; 2007년 4월 20일
- 2) 장소 ; 서울가든, 시카고
- 3) 토의 및 결정사항 ;
 - (1) 동기대표
 - 64회 이전 : 이영식 회장 겸임
 - 65회 : 김수용
 - 66회 : 최성정
 - 67회 : 김광준
 - 68회 이후 : 남신일
 - (2) 2007년 Golf Tournament.... 2회
(5월과 9월)
 - 5월 골프.....주관; 최성정, 이수광
시일; 2007/5/26, 12:30PM
장소; Willow Crest Golf Course, Oak Brook, IL
 - 9월 골프.....주관; 이영화
- 4) 보고사항;
 - (1) 시카고 한인 의사회...2007 회장 조용철 (고려대)
 - (2) 경대의대 동창회(3월)...참석자 김종구, 강창근, 김수용, 이수광, 고충환, 김광준, 최임석, 정영섭
 - (3) 시카고 동창회비; \$75.00 로 정함 (2007)
 - (4) X-mas party는 경북의대 동창회 와 함께 하기로 함.

Golf Tournament Report

* **Date:** September 12, 2007 @ 12:30 PM
 * **Place:** Fox For Hills GC, Cary, IL
 * **Attendees:** 16 men (including a guest) & 11 ladies
 * **Roundup:** It was a huge success as a new trial on weekday. The weather was perfect, the course was challenging enough and dinner at China Palace was excellent. Most of all, fellowship among our members was

the most enjoyable & meaningful.
 Here is the list of Winners:
Men:

- Gross Champion: Seung Soo Lee (87)
- Grand Champion: You Sah Kim (102-26=76)

A-flight

- Net Champ- Sung Jung Choi (93-16=77)
- 2nd-Young Hwa Lee (95-16=79)
- 3rd-Jong Man Lee (95-15=80)

B-flight

- Net Champ-Young Chang Kang (103-26=77)
- 2nd-Young Soo Park (98-20=78)
- 3rd- Soo Yong Kim (101-20=81)
- Longest Drive - Ung Yun Ryo
- Closest to Pin - Sung Wun Kim

Ladies :

- Gross Champion-Mrs. Sung Jung Choi (90)
- Net Champ-Mrs. Soon Ho Park(97-22=75)
- 2nd-Mrs. Young Hwa Lee (99-22=77)
- 3rd-Mrs. Bann Kang Ryo (100-22=78)
- Longest Drive-Mrs. Young Nahm Lee
- Closest to Pin - Mrs. Soo Yong Kim
- Booby - Mrs. You Sah Kim (Rookie of the Year)

Big story was Dr. Ung Yun Ryo hit longest drive, >+300 yards, memorable event in our golf outing, probably in new record in recent outing history. (이수광)

12 Nov. '07

1. President of KPNU , Dr Dong IL No, visited in Chicago on 19Th of September. We had a welcoming party in Seoul Garden and many alumni attended to greet him and hear current news from home town. Many interesting topic was discussed about changing Medical School system.

2. With fortune of weather we had a nice Golf Outing with KPNU at Old Orchard Country Club on 26Th of September, Many golf loving alumni attended in event and outstanding Golfer are Mems Gross, Yeo Jae dong, Net cham: Dr. Young Hwa Lee, Ladies Gross, Mrs Sang Lip Chung (by invitation), Net cham: Mrs. Young Nam Lee

3. X-mas and Year end party will be 2nd Saturday in December. More details will be inform in future

Respectively yours
SooKwang Lee

Ohio 지부

회장; 구자권

박 선생께!

그간 안녕하십니까?
 이곳 Ohio 지부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구자권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찬조금 \$380.00을 이재욱 후배로부터 받았습 니다. 이 돈은 절대로 호트로 쓰지 않고 오하이오 지부의 발전과 우리 경북의 대의 발전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하이오 지부 동창회장

와싱턴지부

회장 김기춘
총무 정윤기

경북의대 Washington지부 동창회모임 이 아래와 같이 2 번 있었습니다.

ㄱ) Dinner 모임

일시: 9/11/2007 7:00PM

장소: **Mirac Jo 10194 Baltimore National Pike #111, Ellicott City, MD 21042**

1) 참가인원: 12 members

김상완부부, 박재무부부, 김기춘부부, 신건석부부, 정윤기부부, 이광백부부,

2) 토의사항:

(1) 회장님께서 오는 이사회 모임에서 있을 2009년도 회장직에 대해서 토의.

(2) \$600, 지역동창회 활성화를 위해서 총동창회에서 보냄

(3) 10/9/2007 Golf 와 모임(별지참조)

지부 동창회 소식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From page 7

ㄴ) Golf 그리고 모임

일시: 10/9/2007

장소:

1. GOLF: 1:00 PM tee time -Turf Valley resort golf course

2. 저녁모임: 6:00 PM - 장어시 광어동: 10194 Baltimore National Pike #116,

Ellicott City, MD 410-480-1442

1) 참가인원: 18 members

윤주덕부부, 김상완부부, 여병택부부, 박재무부부, 김기춘, 박내홍, 이진흠부부, 정윤기부부, 이광백부부, 이상희부부

2) 토의 및 보고사항

(1) 대의원 회의를 참가하고 오신 김기춘 회장의 보고

(2) 2009 년도 미주동창 회장직이 와싱턴지부에 오기때문에 모든 동문이 합심해서 일하기로 다짐. (이상 정윤기)

(3) 이강백 동문이 이곳 Ellicott city에서 이강백 의료를 열었음을 알리는 바이다. (김상완)

NY 지부

회장 ; 이재철

미주 동부 뉴욕지구 경북대학교 총동문회와 의대동창회(회장 안상모, 의대 회장 이재철)는 지난 9월 12일 모교 노동일 총장과 송재기 국제교류원장 겸 통계학과 교수의 뉴욕 방문을 환영하며 뉴욕 맨해튼 Korea Palace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뉴욕지구 동문 및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인턴쉽 과정인 모교 재학생 15명 등 총 41명이 함께한 만찬자리였다.

노동일 총장은 9월 12일-23일 미국 방문을 통하여 재미동문들과의 만남을 비롯하여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 지역

대학들과의 교류활성화를 논의하고 해외인턴쉽 확대, 동문회 활성화 등을 통하여 미국지역의 국제화 거점을 확보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했다. 모교 개교 60주년을 맞아 "21세기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실현해나갈 경북대학교의 움직임을 주목해달라며, 노동일 총장은 모교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1. 대학간의 통합: 경북대학교는 금오공대와 경북대 공대의 통합을 거쳐, 현재 상주대와의 통합을 논의중이며, 안동대도 통합을 희망해와 검토중이다.

2. Law School 유치를 위해 Law 관련 서적 구입 및 전문 교수진을 이루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3. 개교 60주년을 맞아 Global Centre 인 Twin Tower를 건립 추진중이다. 모교 발전 기금 마련을 위해 해외 동문의 찬조를 부탁한다.

4. Leadership Program을 통해 재학생들의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 강화. 뉴욕과 뉴저지에는 모교 재학생 15명 (1999-2005 입학)이 1년 과정으로 미국회사에서 각각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5.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계 명문대학교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기록-박숙희)

California지부

은퇴하는 동창들이 많아지면서 프로리다와 캘리포니아의 동창들이 증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지회가 있고 많은 선배 분들이 캘리포니아에 계신다. 55년전 졸업생만으로도 김영택 (43), 백남진 (45), 최성식 (53), 노기문 (53) 선배님들이 계신다. 캘리포니아 지회의 Web의 사진에 나온 송진웅 (49) 선배님은 주소가 없지만 은퇴하신 후 자녀가 있는 캘리포니아에 오신 듯(?)하다. 전임 회장을 역임한 유시홍 (59) 선배도 캘리포니아로 은퇴한 줄 알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회원들은 37명이 넘는 회원이 있는 큰 지회이다.

그런데도, 금년 총회에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프로리다 까지 왔었던 동창들을 기억한다. 시차등으로 전화가 여의치 않고 많은 분들이 e-mail이 있으나 사용을 하지 않는듯하여 공식적인 연락은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지부의 web을 통하여 동창간의 모임과 연락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락이 닿은 유시홍 선배는 캘리포니아 동창회는 최근엔 잘 모이지 않았지만 X-mas 때는 만나게 모여 보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유시홍-LSG)

Michigan지부

회장;김영길

미시간에서는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고 따뜻한 곳으로 이사를 가셨다.

미시간, 랜싱에서는 지성해 선생님의 이름을 딴 Chi Heart & Surgery Center가 Open 되었다. 미국 지역 사회에서 칭찬을 받는 훌륭한 선배가 있음이 자랑스럽다.

지역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동창회 보조금은 받았으며, 연말에는 동창들의 모임을 갖을 생각을 하고 있다. 김영길 회장은 미시간 지역 한인 의사회장으로 2006년에 수고하다가 금년에는 부회장으로 수고하고 있다.

(김영길-LSG)

동기회 소식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60년도

- (1) 거의 40년 가까이 뉴욕병원에서 근무하던 **최중식** 교수의 은퇴 소식이 다. 은퇴한 후, 지난 10월 초부터 훌쩍 Florida로 이주하였다. 소원대로 골프의 장족 발전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을 미리 축하한다.
- (2) **백영희**씨 (Mrs. 강경훈 '60)가 세번째 책 '가실의 봄 뉴욕의 가을'을 출판 하였다. 그간 바쁜 교사 생활 속에서 신문과 잡지등에 연재하던 글들을 모은 것이다. 쉬운 글들이지만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들이다. 출판한 새 책의 판매 대금은 전액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donation을 할 계획이라 한다.
- (3) **임병우** 동기회장 주도로 10월말, 1주일간 Myrtle beach golf 여행을 마련하였다. 강경훈, 김두조, 김상완, 여용연, 이상국, 임병우, 최중식, 모두 7 Couple 이 참여하였다. 50년전의 학창시절로 돌아간듯한 즐거운 모임이었다. 매년 이런 모임을 1-2회는 갖기로 하였다.
- (4) 2008년 하순경에 12박 13일의 **남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Brazil, Argentine 그리고 Peru를 관광 할 계획이다. 누구나 환영하며, 상세한 내용은 아세아 여행사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212-685-2662)
- (5) '60 동기회 Web을 개설하였다. Website 에는 동기뿐만 아니고 많은 동창들의 소식들이 있다. 주소는 <http://lee-ny.com> 이다. (이상국 '60)

61년도

- (1) N.Y.C 에 은퇴하셔서 살고 계시는 **김수생** 동문(61년졸)께서 작년 10/31/2006 에서 1/31/2007까지 Catholic 재단을 통해 Kingston, Jamaica의 Slum 지대에 있는 St. Joseph Hospital에서 무료봉사로 사랑을

을 실천하셨습니다.

- (2) 61년도에 졸업하신 **심재훈** 동문께서도 지난 3년동안 한국에 가셔서 12개월 동안 성 요셉병원에서 무료봉사를 하셔서 의술보다 더 큰 인도와 박애를 보여드렸습니다. (문정오 '66)

64년도

50년전 한 교정에서 모여 다 함께 출발했던 '64친구들! 제각기 길을 떠나 어느덧 Retire한 친구들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 고향 땅에서 또는 멀리 미국 땅에서 서로 헤어져 살고 있지만 항상 우애있는 훈훈함 속에서 친구 부인의 이름도 스스럼 없이 부르며 서로 소식을 전하며 또 받으며 지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64 동기의 특별한 우정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2월 Phoenix, AZ의 동기회 모임에는 43명이 모여 너무나 반갑고 즐거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만남의 약속도 가졌습니다.

내년 2008년 4월에는 입학 50주년을 기억하며 가슴 설레이는 한.미 총 동기동창회를 대구에서 가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Thailand, Cambodia, Vietnam을 관광하기로 정하고 준비 중입니다. 동기 외에도 함께 **동남아 여행**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하여 주십시오. (안영환 '64)

66년도

- (1) 현재 New Jersey Medical School의 정형외과 교수로 재직중인 **이규청** ('66) 동문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있었던 한국-일본 신경외과 척추학회에서 주연사로 강연하였다. 금년 5월에는 Berlin (Germany)에서 있었던 국제인공척추학회에서 Research Science Paper의 1등상을 받았다. 또 10월 말에는 North American Spine학회 주최로 열렸던 정

형외과 척추학회에서는 800여명의 회원들에게 주 강사로 강의를 하였고 척추학회의 거장임을 인정받았다. 또 오는 2008년 1월에는 Pacific Asian 인공 Disc 학회의 주강사로 초청을 받고 있다. 한편 그는 300개 이상의 학술논문을 쓴 학자이기도 하다.

최근 2년 동안에는 Nexgen 회사를 설립하였고 Physio C&L등의 인공 Disc를 발명하였다. 이규청 동문의 인체 척추 수술요법은 한 단계 높은 발전과 성공을 가져왔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척추수술과 대치료법의 권위자가 우리 경북의대의 동문임이 자랑스럽다.

(2) '66년도 권석찬 동문의 부인 Mrs. **장재옥**은 미주지역의 한국요리 연구가로 유명하다. 매주 뉴욕,와싱턴,시카고의 고정 요리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국영 혼용한 요리책 "우리요리 이야기" 1,2,3,권의 저자이기도 하다. 요리책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suckwon@hotmail.com으로 연락을 바란다. ('66)

67년도

Class of 67 졸업 제 40주년 기념

알래스카 크루즈 참석자 명단:

한국에서, 박영남, 이성일, 이원순, 장병희, 정계효, 이충일,*문행자, 김훈남, 김무현, 미국에서, 김광준, 정의일, 임무웅, 이상준, 김승조, *육정자, 박대원, 김영걸, 이상욱, 김영철, 박순호, 김성원, 정태수, 최임석, 정수진, 노여주 (부부)

동기회회장: 미국: 김광준, 한국: 박영남, 총무: 최임석, CME담당: 김승조, 김영철 박영남 동기.

이 크루즈가 재미있고 유효하게 모든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하기에는 김광준 동기부부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2년 후에는 동경(東京)에서 다시 모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준 '67)



“韓流 小考”

姜子求 (62)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한류란 말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드라마 (대장금... 등)을 보고 유교적인 가치관이 중국인들보다 강하고 훌륭한 것에 빚대어 중국 언론이 먼저 “한류”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류”란 무엇인가? 한류는 病들지 않은 건강한 부분의 우리 민족성이 서양의 기술과 표현력을 만나서 피어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나의 스승이신 李東植 선생님에 依하면 (韓國精神治療學會報 제32권6호) “19세기말 서구열강의 식민 제국주의 일환으로 일본에 의해 우리나라가 강제로 점령당하여 세계사의 무대에서 한국이란 나라와 문화가 사라졌다. 25시의 작가 ‘게오루규’ 신부는 한국에 와서 밤 열차도 타보고 한국의 문물도 접해보고 난 후 남긴 말이 “일본에 의해 한국은 생매장” 되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또 “弘益人間思想이 세계를 지도할 것이란 말을 남기고 작고했다. 결국 韓流란 생매장되었던 한국인의 心性이 여러 방면으로 세계를 향하여 분출하였고 또 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인다.

한국의 드라마, 음악 등은 일본사람을 울리고 “온 사마”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 “온 사마가 일본인을 바꾸고 있어요” ’ 오사와 츠타무’ 재한 일본공사와 대담(매일신문 2004년 12월27일)한 기사다. 온 사마가 일본 공항에 도착했을 때 5,000여명 넘는 중, 노년층 일본 여성들이 열광했다. 이 중, 노년의 일본 여성들이 한국을 혐오한 대표집단층이었다. 그러나 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싫어했던 이 사람들이 “아! 한국은 이런 나라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친밀감을 느껴요” 라고 했다.

한류의 한 특징이 타인종,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대장금, 허준, 주몽등 드라마와 음악, 영화, 운동, 올림픽, IT 상품...등도 비슷한 반응이다. 그러면 왜 친밀감을 느낄까? 전 “정신문화연구원 원장을 지낸 유성국 교수에 依하면 “山海經”이란 아주 오래된 중국풍물책에 東夷族은 “길을 갈때는 서로 비켜주고, 활을 잘 쏘며, 음주, 가무에 能하고 집안에서는 소반에 음식을 놓고 겸상을 하며, 마루에는 ‘호피’를 깔았다고 적혀있다. 또 후한서 동이전에는 “東夷는 근본이 어질(仁)고 생물을 사랑하며, 천성이 유순하여 약탈을 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되었다고 한다.

한말로 말하면 우리민족은 어질 “仁”으로 5천년을 관통해 오고 있고, 우리문화는 “仁”의 표출이고 한국인은 본래 “어진사람”들인데 외세(사대사상과 일본에 패배한 식민사관)에 대항하여 싸워 이기지 못하고 속으로 항복하여 생긴 패배의식, 염전사상에 病들어 있다가, 이제 4.19를 경험하고 대외적 특히 일본과의 경쟁을 통하여 이겨낸 해외상사원들이 자신감을 제일 먼저 자각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일으켜 우리를 자신의 재발견과 우리것 찾기운동으로 한단계 발전하여 결국 경제 대국에서 지금은 문화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한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족성의 근본인 “仁”이란 무엇일까? “仁”은 유교적인 용어지만 이것을 비유하면 (이동식 선생님의 依하면)봄별과 같은 것이다. 봄이 되면 만물이 生氣를 찾는다. 앙상한 가지마다 새순이 나오는가 하면 아직

까지 눈덮인 언 땅에서도 애먼 노란 새싹이 눈덩이를 머리위에 이고 살며시 솟아오른다. 봄빛은 너와 나를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공평하고 봄분 위기를 만들 뿐이다. 따라서 지상에 있는 동식물은 물론 무생물까지도 그 영향을 받는다. 말하자면 “慈愛無限”하다. 仁이란 이와 같다는 뜻이다.

한류가 한국文化이며 이제 우리민족의 本來性品이 모든 방면에서 분출되어 나오고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이 한류의 특징은 다른 문화권에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노동의 종말”의 저자 제러미 리프킨(J. Rifkin) (조선일보 2004년1월20일)과의 대담에 보면

“한국 韓流熱風을 이어가면 아시아를 주도 할 수 있고” “아시아, 미국, 유럽의 특성을 한국은 모두 갖추었으며” “한국은 American Dream 과 European Dream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나라”

그는 또 “인간이 죽을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他人과 공감하면서 나누었던 사회적 관계”라며 “문화가 국가와 지역간에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며 문화의 힘을 강조했다. 유성국 교수에 依하면 廣開土大王碑文에 있는 고구려 東明聖王(BC 37)의 건국이념이 “도로써 다스리고 四海(세계)를 영원히 편안하게 한다는 말과 그리고 단군의 건국이념과도 일치한다.

마침말 : 한류는 우리민족이 5000여년을 관통하여 지녀온 “仁”의 표출인 “한국고유문화”이고 他文化권에서는 흉내낼 수 없다. 그리고 他文化와 한류는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Oh Danny Boy

노재문 (62)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빛을 느끼며 Coffee 한잔을 앞에 놓고 조간신문을 훑어보는 토요일 아침은 분명 한 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그 분위기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조용히 불러보는 좋아하는 노래 한국이야 오히려 더욱 자연스러운 것이리라.

“아 목동들의 피리소리들은 산골짜마다 흘러나오고……” 잔잔히 퍼져나가는 노래리듬과 같이, 내 마음은 어느덧 햇빛 나는 산골짜기에서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있는 평화스러운 목장을 넘나들며 혼자 흥에 젖어있었다.

그날은 마침 외국인과 결혼한 젊은 친척 내외가 멀리 Texas에서 방문하여 하룻밤을 유하고 있었던 참이다. 그는 이층에서 내려오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어, 누가 Oh Danny Boy !를 부른 것 같던데?” 하며 그 노래소리의 근원을 찾고 있었다. “That was me Todd.” 나는 보던 신문에서 눈길도 때지 않으며 덤덤히 대답했다. 그런대 뜻밖에도, “Waah ! You have a beautiful voice!”

나는 그의 입에서 대단한 감탄사를 듣고서야 고개를 들었고 “그래?” 하며 어리둥절하게 대답을 해놓고 보았지만 내심 약간 상기되어있었다. 미국사람이 내 영어노래를 듣고 기탄없는 감탄을 했다면 괜찮다는 뜻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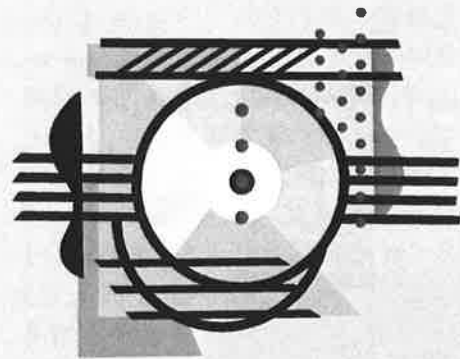
사실 오랜 세월동안 나는 이 노래를 즐겨 부르기는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른다. 워낙 세상 만인들이 좋아하는 노래이고 보니 그저 귀 동양으로 배웠는지, 학교 음악시간에 배웠

는지, 도무지 기억이 없고 따라서 혼자만 음미하는 노래일 뿐 대중 앞에서 한 곡조 뽑을만한 정도는 결코 아닌 처지인데…

그렇다면, 이 차제에 이 노래를 한번 제정비 강화해봄이 어떨까!

사실 40년이 넘게 영어하는 나라에 살면서 남 앞에 가슴 펴고 한국 뽑을 수 있는 영어 노래 하나 없는 처지를 생각하니 나의 이 즉석 결심이 더욱더 지당하게 느껴졌고, 금방 어느 콩쿨대회라도 나갈 날자가 잡힌 것처럼 마음이 들떴다.

하지만 실제로 노래 CD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그 후 훨씬 지나서였다.



만하탄 32가에 있는 고려서점 한쪽에는 노래 cassettes이며 CD판들이 즐비하게 진열되어있다. 한참을 두리번거렸지만 Oh Danny Boy가 담긴 노래판은 어느 Section에 있을지조차도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한 젊은 점원이 등 뒤에서 거들었다.

“손님, 뭘 찾고 계십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20-30대쯤 되어 보이는 짹짹하고 인상 좋은 청년이었다.

“아, 저, ‘아 목동아’ 라는 노래를 찾고 있는데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 노래라면 “아, 네” 하고 금방 진열장 어디로 가서 CD판을 빼올 줄 알았는데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그는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모르는 학생처럼 멍한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었다.

“누가 불렀든 노래 인대요? ……가수를 알아야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나는 그의 엉뚱한 반응에, “아니 그건 어느 특별한 가수가 불렀든

게 아니고 아무라도 부를 수 있는 노래데… 왜, Oh Danny Boy 라고 Ireland 민요 있잖아요? 학교서 음악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고 … 혼하게 부르잖아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현철’이 가 불렀습니까?”

“?! ”

“아니, 그런 노래가 아니라니까… 아주 Popular 한 외국 민요인데 들으면 금방 알텐데…!” 나는 약간 짜증스러웠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혼자 중얼대며 포기하고 나갈려다가, 모처럼 어려운 걸음으로 왔든 것을 생각해 다시 발걸음을 돌리고는,

“그러면 내가 한번 불러 볼 테니 들어볼래요? 금방 기억이 날거요.”

“아, 네 한번 불러 보십시오, 호호…… 그러면 제일 쉽게 찾을 수 있지요…”

그는 난감한 순간을 다행스럽게 넘겼다고 생각 했는지, 갑자기 활짝 피어난 얼굴로 두 손까지 살살 비비며 노래 들을 준비를 했고, 나는 그를 책장이 가려있는 코너로 대리고 갔다. 잔기침도 몇 번 해, 목을 티워가며, 이 세기의 Rehearsal 에 돌입하고 있었지만, 가급적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목소리를 낮추며 내 노래는 시작되었다.

“아 목동들의 피리소리들은……” 채 한 줄도 끝나기 전에 그는 마치 어려운 퀴즈 문제라도 알아맞힌 것처럼 STOP을 걸며,

“아, 그거 배호의 노래죠?”

“……? 뭐라?”

“배호가 불렀든 것 맞죠? ….

추모의 글

김경환 선배님 ('56) 최중식 (60)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범 없어도 될 사람;
김 경환 선배님의 부
음을 듣고.

흔히 끝 없이 마음씨 좋은 분을 “범 없어도 될 사람” 이라고 부른다. 김 선배님이 전형적인 그런 분이셨다.

만나면 항상 “최 선생 !!” 그렇게 잔잔한 웃음속에 낮은 음성으로 부르시곤 했다. 그의 얼굴에는 늘 잔 주름과 얇은 웃음이 함께 했고, 그리고 코 끝으로 흘러내리는 눈보기를 올리시면서 “그래 별일 없지요?” 하시곤 했다.

그때 우리들은 선후배가 열심히 함께 만났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사철 내내... 만나는 곳은 김 선배님 댁이나 오 창열 선생님 댁이였고, 모여서는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Poker도 치고... 그래서 먼 이국임을 잊고 한 없이 즐겁게 지낼 수 있었다.

그때 김 선배님은 우리에게 낯선 Wine에 대해서는 선생님이었지만 Golf만큼은 낙제생을 면치 못하셨다. 한번은 한

Golf장 첫번째 홀에서 Tee off를 하시는데 Iron 5을 들고 나오셨다. 그리고 왈 “선수가 Iron으로 Tee off 하는 것을 한번 볼래 !!”라고 하시면서 호기 있게 스윙 한 것은 좋았는데, 그만 360°로 온몸이 회전 하는 바람에 주변을 웃음 바다로 만드셨다. 이제는 New Jersey에서 있었던 그 일들도 벌써 20년 전의 추억으로만 남았다.

김 선배님은 1956년에 모교를 졸업하시고 일찍 미국에 오셨다. 그 뒤에 줄 줄이 New York 근방에 온 후배들에게 미국 정착과 취업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셨다. 선생님은 꼭 30년전 (1976-1977) 동창회 미주지부의 제6대 회장으로 활동 하시면서 우리 동창회 역사에 뚜렷한 업적을 남기셨다. 그중 특히 중요한 것은

북미주 지부를 비영리 단체로 New Jersey주에 등록 했고 (그 전에 등록 되어 있었으나 중도에 소실 되었음), 처음으로 모교 학장님을 총회에 초청해 참석토록 했으며, 또 총회때 CME Course를 추가해 총회의 모임이 친목과 학문 정진의 기회가 되도록 하셨다. 또 공식으로 사용 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어 회칙을 영문화 하는 기초를 닦아 10년 후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문 회

칙으로 발전 하는데 도움을 주셨다.

그후 얼마 지나 불의의 사고로 사모님을 잃어신 후 가업을 전승키 위해 한국으로 귀국 하셨다. 우리 동문중에 이런 좋은 선배님이 동창회 초기에 계셨던 것은 우리에게겐 큰 자랑이고 또 축복이기도 하다.

몇년 전, 김 선배님이 미국을 방문 하셨을 때다. 먼저가신 오창열 선배님을 회상 하시면서 “우리 옛날 그때가 참 그림자!!” 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젠 남은 우리가 그와 함께 한 젊고 즐거웠던 그 옛날을 그리워 하고 있다. 그 후 오래 뵈옵지 못 했지만, 다정하든 목소리와 얼굴의 잔 주름을 따라 흐르든 그 잔잔한 웃음이 눈에 선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최 중식 (60)

*김 경환 선배님은 금년 6월에 대구에서 Pneumonia로 돌아가셨다.

From Page 11 (노재문)

호 호, 아주 저음으로 나오는 것이...
“SHUT UP !”

짜증과 울분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나도 모르게 고함이 나와 버렸고, 그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이 오히려 더 알미워 뺨이라도 한대치고 싶었지만 현관문을 박차고 그대로 나와 버렸다. 차를 세워놓은 곳으로 걸어가면서도 계속 화는 풀리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 목격했던 Oh Danny Boy 음반을 사지 못

한것 때문은 아니다. 그토록 설명을 했건만, 계속 흘러간 유행가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젊은이의 알파한 IQ에 대한 실망 때문인가? 저음으로 불리는 노래면 다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의 아류라고 생각 하는 이 예쁘장한 젊은이의 풍부한 몰상식 때문인가?

소설낭독 같은 아니면 염불 외는 것 같은 노래(?)에는 발광할 줄 알아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애창하는 노래는,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다고 때를 쓰는

우리 젊은이들의 얇은 교양에 대한 분노인가? 그렇지 않으면, “야, 이 캐캐묵은 영감쟁이야, 요즘도 ‘돌아오라 소렌트로’며 ‘캔터키 옛집’... 을 노래라고 부르는 줄 아느냐? 차라리 ‘궁따리사바라’나 김근모의 ‘평계’를 배우려 했으면 아무 문재도 없었을 것 아니냐?” 그래도,

그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으니, 위로는 커녕 마음 한구석은 씩씩하기만 하다.

詩

67년도, 졸업 40주년 기념
Alaska Cruise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잠재우며 더불어 살아온 우리들의 분신,
60여 성상의 회로에락을
끼웃거리는 흰 바닷새들이
번져내는 파문 위에
오늘은 흰 포말로 풀어낸다

그처럼 많은 이야기들을
그처럼 복잡한 사연들을
다 주어 삼키고도 말이 없이
여인의 젓가슴처럼 부드러워지는
긴 날의 大洋은
얼음줄기를 토해내는 대륙의 목을 안은 채
반은 午睡로 감기어 지는 우리들의 눈들을오늘은
써늘하게 적서준다

알래스카여

이 상 준(67년)

아세아(亞細亞)와 잡은 손 마디에서
풀려나는 진주 조각들
목에 감으려다 흘러버린
정(精)의 부스러기, 그 알류산 열도를
테평양 윗목에 버려둔 채
기대한 미주(美州)대륙을 분만하여

세기의 진통을 끝내고 산후의
허탈함으로 대양의 빙수(氷水)에 목을 축이며
숙연해진 <알래스카>

정갈한 흰 눈꽃을 걸친 채
비스듬히 누운
거대한 반라(半裸)의 여인
인생의 후반기에 40주년의 해후를 맞는
우리들, 그 일상에서 떠날 수 없는
숨털같이 다독여 온 우정들을
당신이 몸담은 거룩한 물결 위에 띄우고
오늘 가슴과 가슴들을 여는
축제의 크루저

빙하이더니, 긴 날의 태양이더니
흑암을 깨는 오로라이더니
아무리 묘사해도 붓끝이 다 기울여지지 않는
흰 눈꽃의 아름다움으로 의상을 여미며
우정으로 꽃피우는 우리들에게 웃으며 다가서는
알래스카여
흰 눈의 여왕이여



-즐거웠던 2007년 8월 4일- 12일, 50명의 동기들과 부
인들이 함께 한 경북의대 제 35회 졸업 40주년 알래스
카 기념 여행을 마치고-



노인으로 살아가기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김종구 ('58)

"Long and hard is the way that leads from the darkness to the light. Gates of adamant, barring us out, prohibits all ingress." from 'PARADISE LOST' by John Milton (1608-74)

밀턴은 잘 알다시피 영국 역사의 섹스 피어와 비등한 시인 이었으나 종래 제 2 인자로 세상을 떠났다. 실낙원은 그의 작품 중 대표적인 장편 서사시이다. 암흑에서 광명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길고 험난하여 광명의 세계를 아무에게나 허락지 않는다고 했다. 암흑은 늙음, 절고, 실망, 죽음, 등 나아가서 지옥을 상징하였고 광명이란 행복, 건강, 화평 그리고 고통이 없는 곳, 아마도 천국을 상징했으리라. 장례식에서 자주 부르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 늙음을 체험하지 않고는 그 길을 모두 가는 길이며 뭐 그리 대단한가 하지 않겠는가?

WHO에서는 우리 평균수명을 DALE 즉 Disability Adjusted Life Expectancy로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레건 대통령이 93세로 세상을 떠났지만 11년간 치매로 와병했기 때문에 82 세로 사망했다고 통계상 계산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사망곡선

이 대각선에서 요즘은 'ㄱ' 곡선으로 골프도 그만 접어야하나 생각하니 한 (많은 노인들이 60-70까지 살다가 기

역자형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현상) 바뀌었다고 한다.

여기서 학문적인 노인병학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늙는다는 것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슬픈 세월이 아니겠는가? 우리 옛 시조에도 '귀 밑의 서리를 녹여 볼까 하노라' '세월은 흐름이여 해는 나를 위하여 몇지 않나니, 아 늙도다. 이 늙의 허물이나' 등 많은 시구가 있다. 머리의 탈모로 왕년의 희극배우 신불출의 '영감님 대가리는 후뜨뿔 대가리, 모자 벗고 운동장에 못간다누나' 라는 일제 시절의 레코드판이 기억난다.

눈물은 수분, 점액, 지질 등인데 수분을 받아내는 길이 막히고 점액과 지질은 많이 분비가 되니 자주 눈물을 닦는 할머니 생각나지만 이제 눈을 매 시간 넣어야하는 신세가 되었다. 얼굴에는 예외 없이 누가 노인이 아닐까봐 검버섯 딱지를 붙이니 레이저 수술을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잘 자든 노인들이 불면증환자로 비싼 약을 먹는 예가 허다하다.

그뿐인가, 남자라고 뽀내다가 전립선이 점점 커지니 변소를 매 두 시간 마다 왔다 갔다 하니 에너지 축적하는 숙면을 못하면 무슨 맥을 칠 수 있겠는가. 한심한 남자의 신세여! 관절은 꾸부러지고 만성염증으로 그렇게 좋아하던

나 개인의 경우 특히 통증과 무기력이 장기이식 후에 오는 징후인데 죄 없는 약만 먹고 살게 되었다. 메디케어 등 보험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만 약값으로 생돈을 매년 만 여불 정도 지불한다면 믿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 동안 좋다는 골프 드라이버를 하나 둘 모아 이제 이 많은 골프 체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다. 필자의 신경전문의들은 골프는 자기가 책임질 터이니 물리요법을 계속 하라는데 투병 7년 동안 속은 것 같아 사기 농락 죄로 고소도 생각중이다.

크라이슬러의 곡에 사랑의 기쁨과 슬픔이 있듯이 노인에게도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 됨의 기쁨이라는 게 있다. 가는 곳마다 노인 할인이 있고 요즘은 요일만 잘 알면 공짜 커피도 있고 때로는 점심까지 무료 서비스하는 곳 이 있고 손자손녀들을 통한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 손자손녀를 가져보지 않은 분은 속히 재촉하여 이 기쁨을 나누어 보기 바란다. 열거하고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노인 됨의 슬픔과 역울함과 원통함을 귀중한 지면을 아끼노라 이만 각필할까 한다.

이 불쌍한 동문을 위하여 이 기회에 중 보기도 부탁드리며 모든 동문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겨울밤 김진대 (61)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사람마다 취미가 다르듯, 계절에 대한 감각이 틀린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상하의 계절을 위해 Sun Belt로 옮겨가고, 동북부 내지 중북부 지역의 인구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다. 나라가 크고 부유해서 한나라 안의 계절이 다르니, 선택의 자유가 있어 북에 탄 나라이다.

나는 사계절이 분명한 곳이 좋고, 그래서 한국의 기후를 사랑한다. 봄, 가을은 동요의 계절이고 여자에 비한다면 월경 직전이라고나 할까? 긴 추위를 지나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피부에 느끼게 되면 여자는 바람이 나고, 한 더위를 거쳐 시원한 바람이 가슴을 스치면 남자의 가슴이 설레인다. 여름은 경푸르고 동적이며 젊음이 약동한다.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컷전을 여미면, 어쩐지 발 거름이 빨라지고 월동의 준비가 시작된다. 한풍이 불고 눈이 내려 온 세계가 은색으로 물들게 되면, 모든 활동이 멈추고 정적이 닥아 온다. 그래서 겨울은 사색의 계절이고, 말없이 무뚝뚝한 남성에 비유하고 싶다.

나는 사계절 중, 겨울을 제일 좋아한다. 그렇다고 나 자신이 사색적이거나 묵직한 성품도 못 된다. 눈바람이 치고 창밖의 수은주가 내려가면, Fire Place에 불을 피우고 소파에 기대어 따뜻한 불기운과 장작 타는 냄새를 즐긴다.

어느덧 생각은 날개를 달고 멀리 유년 학창 시절로 달려간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여름철이, 부자에게는 겨울이 지내기 좋다는 어른들의 말이 생각난다. 유년시절에는 집안 형편이야 어쨌든, 눈이 오고 얼음이 어는 날이 제일 좋았다. 눈 속에 파묻혀 종일을 보내도 지칠 줄 몰랐고, 얼음판에서 팽이치기와 썰매타기에 여념이 없어 해가 질쯤에야 다 젖은 궁둥바지를 끌고 집에 돌아왔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방천 독에서 연날리기가 인기였다. 푼돈이나 얻는 날에는, 엮치기가 일수였고.

나는 한국의 겨울밤을 더욱 사랑한다.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면, 우리 큰 방

이 이웃 아주머니들의 모임처가 되어 밤늦도록 화롯불을 둘러싸고 나누는 구수한 이야기들에, 공부는 뒷전치고 윗목에서 귀를 기울이다가 야단맞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늦게 귀가하는 가족들을 위해 아랫목 요 밑에 묻어놓은 따뜻한 밥그릇이나, 골목길을 또박또박 걸어오는 발자국소리에 누구인지를 아시고 문을 열어주던 어머니의 사랑이 아쉬기만 하다.

날씨가 차가울수록 공중의 달은 더 높게만 보이고, 길가의 참새구이 포장마차 밑으로 보이는 쌍쌍의 구두 발 모습이 더욱 다정하게 보인다.

항박눈이 내리는 밤이면 어디고 한없이 걷고 싶고, 멀리서 울려오는 “멍 멍” 짓는 개 소리는 애수를 불러일으킨다.

한창 연애에 열중하던 대학시절, 평평 눈이 날리는 밤에는 어쩐지 이심전심으로 약속도 없이, 와 있을 것만 같아 음악 감상실에서 자정이 가깝도록 혼자 앉아 있던 일이 생각난다.

문풍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찬바람이 코를 찌르는 듯한 밤이면, 따뜻한 온돌방 이불이 더욱 아늑하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적소리는 낭만을 불러주고, “영덕대기 사소”하는 메아리는 겨울밤을 더 깊게 만든다. 한국의 겨울밤은 나의 향수요, 미래의 꿈이 다.



위의 글은 25 여 년 전, 내 나이 40대에 쓴 글이다.

세삼 읽어보니, 나이의 변동이 내 모습의 변화에 못지않게 마음에도 많은 변화를 준

것 같다.

보통의 미국 가정은 일생에 평균 삶의 터를 옮기는 횟수가 7번이라 한다. 나는 한국에서의 숫자를 빼고도, 이 나라에서 10번 이상을 옮겨 다녔다.

1966년 심장병환으로 얼굴이 부석한 어머니의 흔드는 손길을 뒤로하고 김포공항을 떠난 후, 처음으로 모국을 방문했을 때가 12년 후였고, 그때 어머니는 이미 계시지 않았다.

아직도 기억에 역력한 것은, 출국 날까지 어머니는 내가 언제 돌아오느냐고 묻지 않으셨다. 내가 2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으나 웃음만 지우셨다. 서로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리라.

첫 모국 방문 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가 설 땅이 어딘가?’ 하는 갈등에 쌓였었다. 세월은 가고, 첫 정착했던 뉴욕은 제2의 고향이 되고, 32년간 산 오하이오가 제3의 고향이 되었다. 오하이오의 기후는 한국과 같아 사계절이 분명하고, 겨울이면 한국의 매운 추위를 그대로 맛보게 했다.

우리는 첫 아이의 이름을 로라(Laura)라고 지었고, 둘째 딸은 패니(Fanny)라고 명명했다. 한국의 이름이 Two Syllable이기 때문이다. 막내딸을 낳았을 때 제니퍼(Jennifer)라고 했다. 세월의 흐름이 점차 나에게 “나의 향수와 미래의 꿈”의 현실성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은퇴지를 물색하던 중, 많은 동북부의 동창들이 선호하는 상하의 Florida 대신 사계절이 있고 겨울이 온화한 이곳 Atlanta, Georgia를 우리의 마지막 고향(?) 터로 삼았다.

겨울 철에도, 높고 푸른 하늘로 화창한 거실에서, TV 화면의 자동차 지붕까지 눈으로 덮인 북녘의 시가지와 빙판의 고속 도로 장면들을 보면, 나의 감각도 지난 25년 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한국의 겨울밤은 아직도 나의 향수이다.

Perspectives on Depression

문정오 (66)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Depression is one of the most prevalent and debilitating mental health disorders. It results in pain and suffering to individua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high costs to society at large. According to the World Bank depression is the fourth highest cause of disability in the world. The lifetime prevalence of depression is reported to be in the range of 4.4% to 12.6%.



The major set of issues on depression are related to the underdiagnosis and undertreatment of the major depression. The Epidemiologic Catchments Area study reported about a third of the patients suffering from an episode of major depression did not seek treatment and that overall, only 10% of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were adequately treated.

Duration and Symptoms;

The most commonly reported symptoms of depression were low mood (76%), fatigue (73%), and sleep problems (63%). More than half of the patient felt anxious (57%) and 34% had felt life was not worth living. On the other hand less interest in hobbies, friends, and acquaintances was reported in 37% .

The average time from depression onset was 45 months; 43% had suffered from depression longer than 6 months.

Reasons given for depression;

The most frequently given reasons

were stress (36%), own physical illness (33%), or problems with friends or family members (31%).

Approximately two third of patients had experienced a concomitant medical illness such as backache (21%), abnormal B.P. (18%), heart problems (11%), migraine (11%), and arthritis (10%).

The modern theories of etiology of depression are very advanced in identifying contributions by genetics and early childhood experiences like deprivation.

Current management of depression;

About half of patients receive medications. Of them a third received an antidepressant, most frequently Tricyclic antidepressant (TCA) (15%) or a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 (14%). More than two third of the patients had not received any antidepressant medication. Prescription of benzodiazepines are fairly common (28%).

Of the medications currently SSRI or nery (serotonin-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 are regarded most effective and cause the least side effects. Recently many studies utilizing neuroimaging techniques demonstrated these medications cause improvement in metabolic rate and blood supply to the brain regions responsible for depressions such as prefrontal lobe, cingulate gyrus, hippocampus, hypothalamus and other limbic areas.

A branch of psychotherapy name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is proven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medications. It addresses the common human propensity toward false assumptions and spiraling into wrong conclusions on one's self-respect or lovability by others.

For treatment-resistant depression,

an antidepressant can be augmented by another antidepressant, or mood-stabilizers such as Lithium, or antipsy-

chotic like Zyprexa or Risperidone, or by stimulants like Ritalin or Dopamine-enhancing antidepressant as Wellbutrin. Hormones can be effective like Estrogen replacement therapy for peri- and post-menopausal woman, Testosterone replacement therapy for males with hypogonadal symptoms or low serum level of the hormone. Thyroid hormone is a frequently used adjunctive treatment whether the hormone level is normal or low.

Recently reported for their effectiveness are off label over-the-counter substances such as Omega-3 fatty acid, SAME, Folic acid, L-tryptophan, Zinc, Inositol and Melatonin which may be worthwhile to try for mild depression or as an adjunct to a major antidepressant.

Other indications of SSRI;

Fortunately these medications are effective not only for depression but also other serious mental conditions; panic disorder, phobia,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which may be a co-morbidity to depression but even if there were no depression SSRI is highly beneficial.

In conclusion, appropriate management of depression depends on the recognition of depressive symptoms by patients, their possibility of seeking care, and the ability of the primary care physician to recognize the disorder and prescribe the appropriate medicines.



Self 용비어천가

백영희 (Mrs. 강경훈 '60)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인연>

원고 재촉을 모르는척 하는데는 이골이 났습니다. 쓰지 않아도 되는 수가 없을까 모른척하다가 미를 만큼 미루었는데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라 이리 저리 엮인 지연과 학연에 글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났습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 동창회 회장(박대선)은 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그리고 편집장은 남편의 친구입니다. 편집장이신 이상국선생님은 내가 쓰야 할 칸만 비워놓고 웹사이트에 '회지 발행 예정'이라 올려 놓고 빈 칸이 나를 쩌레 보게 합니다.

"니가 글 줄이나 쓴다고 봐 줘서 지면을 주는 것이니 고맙게 생각하고 쓰라" 는 남편의 구박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누라'가 남편의 동창회지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 동창회지라야 이창운선생님 같은 '시'를 쓰던지 아니면 노재문 선생님 같은 '수필'을 쓸 터인데 말입니다.

대구 여자는 거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구 여자 중에 더 거센 사람은 이 대구 의사 사모님들이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반론도 많고 할 말도 많지만 어쨌건 나는 바로 "거센" 여자들의 범주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거센 여자인 내가 꼼짝 못하는 사람은 바로 남편 아니겠습니까

<의리>

대구 사람들은 '의리'가 있다는 소리를 우리끼리는 하고 삽니다. "우리가 친구 아이가" 라는 부산의 우정과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지만 한 40년 살고 보니 남편의 친구들은 확실히 "우리가 넘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끔 '의리'가 있습니다. '의리'라는 것은 바로 서로간의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

들은 '의리'가 있는 거지요.

미국을 와서부터 남편의 동창회에 따라갔습니다. '삼중지도'가 있는데 어찌 감히 남편을 따르지 않겠는지요. 그것이 부덕이라 믿고 따라 다니다 보니 처음에는 남의 부엌같이 어색했던 그 자리도 남편이 좋아하니 나 또한 재미를 붙여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고 편안해 하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설사 남편이 내 동창회는 따라오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미국생활 40여년, 선배들이 있어 미국 사는데 힘이 되어주었고 그 선배 부인들이 (오창렬선생 부인, 김경환 선생 부인, 김정진 선생 부인,) 사모님이 되어 우리를 다독여 주어 우리의 이민살이도 또한 편안했습니다. 주말이면 바베큐하고... 맛있는 음식도 챙겨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테니스를 치며, 겨울이면 아이들과 함께 스키여행도 같이 하고..그러다 모두 골프에 몰두하면서 골프가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 한 두분씩 은퇴를 하며... 모두 여행을 다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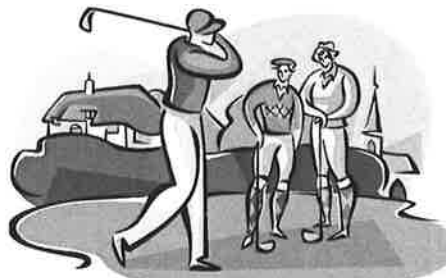
지난 4월, 60년도 동창이 주축을 이루어 가는 여행에 따라갔습니다. 스페인 모로코 폴투갈... 그 여행은 어린시절 수학 여행 같았습니다. 남편과 그 친구들 동창들이 함께 하는 여행... 좋은 호텔, 좋은 안내... 좋았습니다. 그동안 다른분들은 이미 세계를 다 돌아 다니셨는데...내가 선생을 하는 학기 중간이라 우리는 이제야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의 친구 부인들은 다 동서 같습니다. 손윗 동서 같다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야 그들이 시집식구면 '시'짜가 들은 시청도 돌아간다고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 친정보다 시집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만남>

이렇게 우리들은 남편들을 통해서 만났지만 우리끼리 더 친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각자가 하는 사회활동에 서로 동원부대가 되어 '품앗이'를 해 줍니다.

우리 60년도 부인들은 좀 세다는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잘 멩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우리들이 멩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축 노릇을 하는 지도자(권숙영)가 있다는 거지요. 그 뿐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중에는 뉴욕에서는 골프를 쥔 잘 치는 사람(배양희, 이창복)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배양희는 내 친구이기도 합니다. 남편친구 부인에 내친구라... 이중친구가 되는 배양희의 메너는 '짱'입니다. 골프장에서 '인격'이 돋보입니다. 진짜 못 치는 왕 초보를 데리고도 골프를 같이 쳐 주니 60년도 부인들은 골프도 다 잘 칩니다. 내가 제일 못 치는데 100를 칩니다. 100까지 거리가 나간다는 것이지요.(조길자).

더더구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권사님(권숙영, 조길자, 권정희)들, 그리고 뉴욕의 YWCA 회장이 두분(권숙영, 임옥자)이나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그 분들의 봉사정신이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몇 몇 안되는 60년도 졸업생 부인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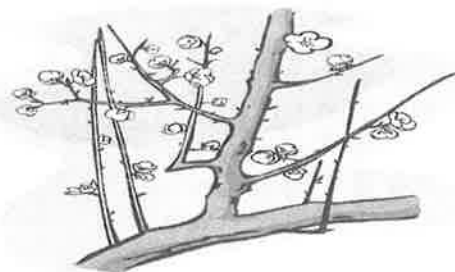
사월이 오면
 새 생명이 움트는 푸른들에서
 겨울동안 움츠렸든
 마음을 활짝 열어봅니다.
 꽃들은 긴 잠에서
 서서히 일어날 준비를 하고
 아직도 찬 겨울이 남기고 간 바람이
 나무들을 흔들어
 새순은 봄 맛을 몸부림에 분주합니다.

사월이 오면
 먼 산에서 아지랑이가
 살며시 내 마음속으로
 연약한 그리움을 안겨주고
 뒷 도랑에서 흘러가는 개울 물소리는
 얼어 붙었던 마음속에
 흐미하게 퇴색되어 가는 사진처럼
 숨어있는 기억들을 불러옵니다.

사월이 오면
 조그마한 호미자루를 들고
 뒷 뜰에 꽃나무를 심던 어머니 생각이 나고
 친구들과 뛰놀던 시내 물 속에 두고 온
 어린 시절의 천진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흔들리는 나무 사이로 보이는 서쪽하늘에는
 몇 점의 하얀 구름이 떠 있고
 나는
 그 구름 속에
 숨어있는 추억 속에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또
 계절이 시작하는 시간이 되면
 희망과 기대 속에
 설래이는 순간으로 하루가 갑니다.



From Page 17 (백영희)

다 사회활동을 합니다.

그 분들은 실은 좁은 대구땅, 내 중
 고등학교 선배님들입니다. 그런 분들
 이니 내가 “싱야~”하며 외치면 “와?”
 하고 돌아봅니다. 나는 골프를 잘 못
 칩니다. 선생하는 동안 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를 데리고 다니
 면서 “한점 봐 주소!” 하면 “알았다”
 하고 ‘미스 경북출신의 미인 ‘성차경’
 싱이는 한점 접어 주고 저 줍니다. 나
 는 “헤헤헤”하고 일불은 벌고 신나

합니다.

이제는 은퇴를 시작하는 나이인
 남편들이지만 우리는 여행갈 계획을
 마련합니다. 내년 1월에는 남미를 간답
 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우리는 노스
 케로라이나로 떠납니다. 일주일 골프
 여행입니다.

이번에는 임병우선생님이 주선을
 하지만, 그 부인 임옥자여사가 한자 한
 자 문구까지 신경을 써 예쁜 카드를 만
 들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집
 집마다 전화까지 다 합니다. “아이고
 당신이 간다고 해서 내가 기쁘데이...”

일을 하면서 힘들어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다고 반가워해 줍니다.

큰 봉사기관에 회장을 한 사람 답게
 일처리가 깨끗합니다. 아직 떠나지 않
 아 잘 모르지만 혹 일을 잘 못하시면
 돌아와서 교정을 보지요...

남편의 동창회, 친구 분들과 선배 후
 배님들, 부인들... 그 사이에서 나는 늘
 편안합니다. 어디가든지 그 분들이 있
 어 든든합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한 멤버로 ‘짱기게’ 됨이 참 고
 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날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자녀들에게 보내는 대화의 편지

최옥련 (Mrs. 정혜진 '66, Anne Chung)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내 지나온 삶을 회고하며 자녀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는 지혜와 충고의 말을, 그리고 내 사랑을 전하고 싶다. 젊은날의 내 삶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한 많은 날들의 경험을 통해 배운 삶의 지혜를 너희들에게 전함으로써 너희들의 인생에, 또 그 자녀들과의 삶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먼저, 내가 한국 전통과 동양사회, 그리고 미국 전통과 서양사회를 둘다 접하고 두 사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강조하며 산 것에 감사한다. 1970년 미국에 정착하기 전의 내 삶의 기본 토대는 부모와 학교 스승들에게서였다. 부모님은 높은 수준의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Catholic의 교리에 따라 나를 키우셨고, 나는 실로 행복하게 자랐다. 네 아버지를 만나 미국에 온 20세기 하반기(1970-현재)의 내 삶은 한국과 미국, 동양과 서양 두 문화를 넘나들며 살았고, 이를 축복이라 생각한다.

내 미국친구들은 우리 한국의 문화 전통과 예의범절, 그리고 그들에겐 부족한 공자의 유교정신을 많이 부러워했다. 이런 친구들을 볼 때, 내 자녀들도 우리 한국의 좋은 문화전통을 간직하며 서양의 합리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동양 문화와 서양문화가 서로 좋은 점이 많으니, 서로 조화를 이룬다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아닐까.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공자적 정신의 예의범절과 미덕이 인생인격에 제일 밑받침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우리 자식 세대에서도 그 공자의 유교정신과 전통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도록 우리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다양하게 독서를 하고, 일

기 쓰기를 계속하도록 권하고 싶다. 미국에 온 뒤, 영어와 미국문화를 배우기 위해 공립도서관에 가서 위인들의 자서전을 찾아서 많이 읽었다. 그들의 삶이 내 가슴에 크게 와닿았고, 너희들을 키우는 지침이 되었으며, 미국 친구들을 사귀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서전은 *The Autobiography of Benjamin Franklin*이다. 그는 하루의 일과를 잘 계획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유용하게 쓰면서 늘 열심히 노력해서 인류문명에 헌신했던 것이 내게는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몇 구절씩 읽었고, 공자도 시간날 때마다 몇장씩 명상하며 내 인격을 다졌다. 하루 일과를 정리할 때, 성경과 공자 읽기는 물론, 일기를 씀으로써 자기 생활을 반성하고 향상시키며, 앞날을 계획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되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일기쓰기를 계속하도록 자녀들에게 권한다.

셋째,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다시 너희들 나이로 돌아간다면 큰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기보다는, 검소하게 절약하며 너희들이 좋아하는 기관을 찾아 성의를 전하려고 부탁하고 싶다. 내가 제일 좋아하고 계속

donation을 하고 있는 기관은 TV PBS (Public Broadcasting System)와 Global Catholic Network인 EWTN (Eternal Word Television Network)이다. 미국에 온 뒤 PBS를 보면서 영어를, 문학을, 역사를, 음악을 배웠다. 특히 PBS의 음악 프로그램은 세계에서 유명한 음악교수들이 직접 강의를 하는 형식이라, 내게는 수업료

를 내지 않는 무료 강의시간이었다. 또한 EWTN의 프로그램은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적 인물과 종교, 철학을 한꺼번에 배울 수 있는 좋은 내 마음의 양식이었다. PBS와 EWTN에서 배운 음악과 문학, 역사, 종교, 철학은 내게 제일 친한 벗이었으며 마음의 위로였으며 지적으로 성장케한 원동력이었다.

넷째, 자녀들이 정말 좋아하고 소질이 있는 취미생활 한두 가지를 함께 즐기기를 바란다. 내 삶에서 가장 복되고 감사한 점은 내가 밖에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너희들과 많은 활동을 함께한 것이다. Ice Skating Lesson과 Piano Lesson을 내 딸과 함께 다녔고, Tennis와 Golf도 너희들과 함께 배웠다. Ski Race에도 주말마다 너희들과 함께했다. 이렇게 자녀들과 활동을 함께함으로써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좋은 기회가 되니, 명심하기 바란다. 단 취미생활은 다른 친구가 한다던가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자녀가 싫어도 억지로 시키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질이 있는 취미생활을



택하되, 좋아하지 않게 되면 즉시 다른 것을 찾아, 그 삶을 즐기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지난 10년동안 커뮤니티 Chorus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며 성당 Choir에서 성가를 부를 때 나는 매우 행복함을 느낀다. 스포츠와 악기연주 외에도 책읽기나 음악듣기를 권한다. 책을 많이 읽으면 책 속에서 다양한

지난 10월 12일에 있었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의 전체 이사회 및 각 시, 도, 지부장 회의록의 내용들을 김정균 회장이 e-mail로 보내 주셨다. 긴 내용들의 일부분을 간추려서 기록한다. (LSG)

1. 학교

1) 학생 현황

2) 대학원 의학과

과정	정원
석사	203
박사	127
합계	330

의학과 (2007년 1학기)

학년	학생 수
의전원 1학년	115
의전원 2학년	110
3학년	144
4학년	134
합계	503

2) 교원 현황

() 겸임교수

구분	전임교수	기금교수	합계	비고
기초의학	53 (10)	0	53 (10)	
임상의학	93 (2)	45	138 (2)	
의학연구소	-	1	1	
합계	146 (12)	46	192 (12)	

2. 안행대상

1) 시상식 (2007년 2월 22일, 대구 그랜드호텔)

- (1) 학술부문; 수상자; 고 오창열 (20회),
- (2) 의료봉사; 사회공헌 부문 수상자; 김명호 (14회)

2) 안행대상 관련 공고

(1) 안행대상 시상 규정 개정안

(* 내용은 <http://lee-ny.com> 에서 참고 바람)

(2) 내년도 대상자 추천 공고

(* 미주에서는 학술 부문에 김재호 '61 동문 추천)

3. 대학 병원 소식 (건축)

	규모	병상	총사업비
칠곡 암병원	지상9층, 지하3층	200	1,000억
대구. 경북 지역 암센터	지상4층, 지하1층		120억
노인 보건 의료센터	지상7층, 지하2층		250억
어린이병원	지상6층, 지하1층	100	300억
치과 병동	지상6층, 지하2층		153억
지역임상시험센터		20	

4. 기타 공고

- 1) 장학기금 자동이체 모금 운동 (월 1만원씩 자동이체) 이미 468명이 538 구좌 신청 (미주지역은; 노재문 장학위원장에게 - Page 6 참고)
- 2) 개고기념 토함산 등반대회는 10월 28일에 있음.
- 3) 내년도 총회는 2008년 2월 22일 (금) 로 결정 함.

From Page 19 (최 옥련)

인격의, 다양한 주인공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정서적으로 풍부하게 되며, 외로울 수가 없다. 또한 취미생활을 하면 친구를 만나는 데도 큰 이점이 된다. 내 Best Friend는 학교친구 외에는 Tennis와 Chorus를 통해 만난 친구들이며, 지금도 그들과 친자매처럼 사랑을 나누며 가깝게 지내고 있다. 취미생활을 함으로써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것, 특히 나의 장점에 항상 감사하고 나의 부족함을 서운해하지 말고 더욱 노력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고 싶다. 나를 위하는 것보다는 자녀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욱 존경하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살고 싶다. 내 삶을 돌아볼 때 나에게 부족한 것이 겸손이었다. 그래서 때로는 불행함을 느꼈고 불만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내가 좀더 겸손했다면 내 인생이 더욱 풍부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겸손을 많이 배우니 다행이다. 너희들도 항상 모

든 일에서 겸손하기를 바란다. 나는 사랑과 겸손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큰 무기이자 힘이라고 생각한다.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한 지혜와 충고, 사랑으로 너희들의 삶 또한 늘 건강하고 행복하며 후회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했듯이, 너희들도 너희 자녀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2007년 9월에
너희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Correspondence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총동창회장의 편지 1

박대선 회장님

9/8/07

그간 안녕하십니까?

전번 Florida의 Annual General Meeting, Delegate Meeting시 약속한 전년도 회장 (past president)님의 초청건에 대하여 학장, 병원장, 동창회장이 만나 다음과 같이 토의하고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토의를 결정하였습니다.

1. 북미주 동창회의 회기를 잘몰라 어느 회장님이 해당하는지를 잘모르니 그곳 동창회에서 결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시기

a) 개교기념일

b) 가을 등반대회(전국 동문 약 400명 전후:동문수로는 단연 가장큰 행사임) 중 택일
올해는 10월 28일 경주도함산 가을 등반대회에 초청을 하고 내년에는 북미주 전임회장님의 선택에 맡기려 합니다.

2) 정비보조: \$3,000과 4박5일 체제비

김정균 : 세강병원 (Tel : 053-620-6223)

E-mail : jkyunkim@yahoo.co.kr

편지 2

10/30/07

Dear President Park !

I received wonderful CD and Document of Dr. Jaeho Kim.

CD will be very useful for alumni work. We, Committee for Anhang Daesang will evaluate all document.

Last Sunday, we went on picnic at Toham-san in Kyuonng Ju, about 300 person (from Seoul, Busan, Ulsan, Donghae, Kyuonng Ju and Taegu) gathered on Parking lots at Bulguk Temple. Our old teachers (Kim Manjac, Hong Sunhee etc.), senior members and late graduates (63rd graduated members) enjoyed and spent a day happily. And also the former president Jung Sujin, Lee Jongsool from LA participated in this event. This evening we are supposed to have dinner together.

Thank you for your warmest regards and work of the year 2007 for the alumni.

Kim Jingkyun, M.D.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2608
Cincinnati, OH 45201

IRS 에서의 편지

Department of the Treasury

Date: JUN 21 2007

KYUNG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ALUMNI ASSOC INC
26 DOGWOOD HILLS RD
NEWBURGH NY 12550-2038

Person to Contact:
Tracy Garrigus #31-07307
Toll Free Telephone Number:
877-829-5500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11-2530840

Dear Sir or Madam:

This is in response to your request of June 14, 2007, regarding your tax-exempt status.


Our records indicate that a determination letter was issued in December 1988 that recognized you as exempt from Federal income tax, and reflect that you are currently exempt under section 501(c)(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ur records also indicate you are not a private foundation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509(a) of the Code because you are described in section 509(a)(1) and 170(b)(1)(A)(vi).

Donors may deduct contributions to you as provided in section 170 of the Code. Bequests, legacies, devises, transfers, or gifts to you or for your use are deductible for federal estate and gift tax purposes if they meet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sections 2055, 2106, and 2522 of the Code.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all us at the telephone number shown in the heading of this letter.

Sincerely,



Cindy Westcott
Manager, Exempt Organizations
Determinations

Alumni Member News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Front Page 의 사진과 설명

지난 7월 12일 Michigan의 Lansing City의 Ingham Regional Hospital에서 지성해 선생의 이름을 딴 \$50 million의 "CHI HEART & SURGERY CENTER" 개원식이 있었다.

2년 전, 병원 이사회에서 결정한 뒤, Lansing City Council과 미시간 주, 상하양원이 그를 honor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의 이름을 딴 심장 수술 센터를 개원하였다.

지 선생님께서는 일반의과와 흉곽외과 Resident 교육과 심장외과 fellowship 을 끝마치고 1965년에 이 병원의 흉곽 심장외과에 Staff으로 들어왔다. "1966년에 이 병원에서 Dr. Chi가 mid-Michigan지역의 첫 번째인 Open heart surgery를 집도한 이래, 30여 년간, 그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온 지역 심장외과 병동의 건물을 증축하고 그의 이름을 따서 오픈 하게 됨이 기쁘다"고 Robert N. Wright 병원장은 축사를 하였다.



내외분 모두 의사로서 30여 년이 넘게 지역 봉사과 practice를 마치고 지 선생님은 1995년에 은퇴 하셨습니다.

동창회 때마다 항상 젊은 얼굴과 겸손한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시는 내외분 (부인 오기환)을 기억하며 두분의 남은 날에 평강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빈다.

지성해 선생님은 1950년에 경북의대를 졸업하셨다. Cleveland의 Fairview General Hospital에서 인턴과 4년간의 일반외과 레지던트를 마쳤다. Ingham Regional Hospital에서 심장흉곽외과 레지던트를, Canada의 Toronto Univ. Circle에서 심장외과 Fellowship을 가졌다.

다음은 병원에서 제공한 그를 위한 Tribute Writing의 일부이다.

Ingham new patient tower has been named the Chi Heart & Surgery Center after medical luminary Seong Chi M.D.

In recognition of Dr. Chi's remarkable achievement in the cardiac care, Ingham Board of Trustees selected the name unani-mously. His dedication to his art and his timeless commitment to patients and staff exemplify the highest aspiration of all healthcare provider.

Dr. Chi was one of four founding physi-cians of the Thoracic and Cardiovascular Institute (TCI) in 1969. His professional staff leadership position included Chief, Dept. of Cardiovascular Surgery (1970-1974) and Executive and Surgical Com-mittee memberships (1969-1978).

In 1987, Dr. Chi was honored with the Health Leadership Award. The Michigan Stat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concurrent resolutions honoring him, as did the Lansing City Council. In 1999, the Lansing State Journal named him one of "100 people of the Millennium". (이영해, LSG)

동창들 소식

1. 지난 동창회에 참석하시고 개회사를 하여주셨든 Florida, Fort Myer에 거주하시는 김태훈 (Martin Taehoon Kim '49) 선생님은 그간 와병 중이셨다. 지금은 조금씩 보행이 가능하시다는 소식이다. (임병우)
2. Pennsylvania 의 Lancaster에 거주하시는 김학중 ('51) 선생님은 오래된 차 사고의 후유증인 요통으로 고생하셨다. 또 최근엔 Total Knee Replacement로 고생하셨으나 지금은 회복기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열심히 PT를 하시고 계시다는 소식이다. (김상완)
3. 많은 동창분들이 은퇴하시고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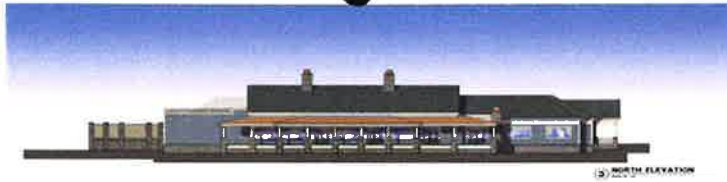
- 봉사와 진료들을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행하고 있다. 61년도 졸업한 김수생, 심재훈 두분도 지난 몇년간 장기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김수생 선생은 Jamaica의 Kingston, slum 지역에서 3개월간 (2006년 10월-2007년 1월) 봉사 하였다. 그리고 심재훈 선생은 2003년부터 3-6개월씩 총 12개월을 한국 영등포 역전의 빈민가에서 봉사하고 있다. (문정오)
4. 금년도 [안행대상] 후보로 미주지역 동창회에서는 김재호(59) 동문을 추천 하였다.
 5. 2007년 8월 15일 모교 피부과 서순봉 교수께서 급작하게 전이된 신장암으로 영면 하셨습니다.
 6. 김경환 ('56) 선배님이 한국에서 지난

- 6월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일찍 도미하셔서 New Jersey에서 Practice를 하시면서, 오랜 동안 New York지역의 많은 후배 동창들을 돌보아 주셨다. 우리 동창회의 6대 회장으로로서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몇년 전에 가업을 계승하시기 위하여 김 선생님은 오랜 도미생활을 끝내고 귀국을 하였었다.
7. 지난 10월 26일에 정수진 ('67) 전 회장과 LA 이종술 동문이 한국의 가장 큰 동창회 모임인 토함산 등반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귀국 하였었다. 금년 모임에는 300여명의 동창들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Page 17 김정균 회장 편지참고)

2008 General Meeting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2008



정기총회

차기 회장: 이재욱

총무: 구분철

골프: 정병하

2008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Date: August 14 (Thursday) → August 17 (Sunday) , 2008 (4days)

Place: Renaissance Quail Hollow Resort; (Near Cleveland, Ohio)

**11080 Concord Hambden Road
Painesville, Ohio 44077**

TEL 440-350-3563, TEL 800-468-3571, FAX 440-497-1111

Golf Overview

Nestled among 700 acres of wooded countryside. Quail Hollow Country Club has two 18-hole championship courses offering challenging golf for all skill levels. The Weiskopf/Morrish Course, which opened in May 1996 is a links style 6,900-yard, par 71 course. Weiskopf course is ranked in the "Top 100 Courses You Can Play" by Golf Magazine. The Devlin/Von Hagge, home of the Cleveland PGA's Buy.Com Tour, is a 6,700-yard par 72 course.

Golf Courses

Devlin/Von Hagge Course at Quail Hollow Resort

Architects: Tom Weiskopf & Jay Morrish

Rating/slope

Tees	Yardage	Rating		Slope		Par
		Men's	Ladie's	Men's	Ladies	
Blue	6712	72.2	N/A	130	N/A	72
White	6357	70.6	N/A	126	N/A	72
Gold	5116	70	N/A	117	N/A	72
Red	4389	65.7	N/A	107	N/A	72



Weiskopf/Morrish Course at Quail Hollow Resort

Architects: Bruce Devlin & Robert von Hagge

Tees	Yardage	Rating		Slope		Par
		Men's	Ladie's	Men's	Ladies	
Blue	6872	73.9	N/A	130	N/A	71
White	6408	71.4	N/A	125	N/A	71
Gold	6019	69.6	N/A	120	N/A	71
Red	5166	N/A	70.2	N/A	128	71





나는 김밥을 입에 물면 가슴이 매인다.

마침내 “지극히 아름다운 오월”이 왔다. 다른 해보다 별나게 많은 눈 덮였든 겨울과, 찬 비로 채워졌든 “잔인한 4월”은 지나갔다. 손주들의 고향 소리가 들리는 뒷마당의 나무들은 연 초록의 부드러운 잎으로 가지마다 덮였다.

5월이 오면 내가 자라든 시골 교회에서는 야외 예배를 갔다. 야외예배는 보통 금호강이나 그 지류의 강변 사장으로 정해져 있었다. 강변을 따라 심은 포푸라의 행렬은 붉은 색을 띤 연한 초록의 잎으로 덮였고, 미풍에 흔들리는 잎마다 부드러운 오월의 햇빛을 받아 왁스를 바른 듯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는 작은 포푸라의 물오른 연한 가지를 꺾어서 껌질을 벗겨 피리를 만들어 불었다.

모래밭에 끝없이 길게 심어진 귀리는 보리나 밀보다 연한 색깔의 잎과 연약한 줄기를 바람결에 소녀들의 머리칼 같이 나부끼고 있었다.

건초로 사용하기 위하여 키우는 크로바과에 속하는 “벤티”의 녀굴은 말벌이 웅웅거리는 보라 빛 꽃으로 덮이고, 우리는 희고 고운 모래밭 사이로 “쇠똥구리”를 찾으려 뛰어다녔다. 그런 5월은 부드러운 햇빛 아래서 모두가 빛나고 향기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시골 학교의 원목이나 교회의 이런 특

별한 날이 되면 어머니는 항상 맛 있는 김밥을 준비하셨고 우리는 이 별미를 이웃이나 친구들과 즐겁게 나누어 먹었다. 김밥을 입에 물고 모래 위에 누우면, 그 때는 시간은 느렸고 하늘의 흰 구름은 너무 아득하여서 빛나는 햇빛과 반짝이는 나무 잎을 따라 줄음이 덮쳐왔다. 그런 초여름은 아무런 걱정도 슬픔도 없는 날들이었다. 그렇게 어린 날의 김밥은 내 입에 익어 갔다.

뒷마당의 손주들을 아이들 아버지가 불러서 저녁을 먹인다. 큰 손녀는 식욕이 왕성하고 아무것이나 잘 먹는다. 그런데 3살이 겨우 된 손자 녀는 항상 밥 때면 칭얼대고 밥투정을 한다. 겨우 달래서 “I want 도디 (고기) and 물 밥” 하는 소리를 하게 하고 물에 만 밥과 장조림 고기로 식사를 하게 한다.



저녁을 먹이면서 애비가 한다는 소리가 “나중 너도 너 같은 아들을 가져라”고 축복을 한다. 그 말은 내가 항상 밥 투정하던 어릴 때의 제 애비에게 하든 말이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같은 어려움을 어머니께 드렸든 기억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가 아들에게 준 그런 축복을(?) 하시는 것을 들은 일이 없다.

6 25가 나고, 중학교에 다니든 나는 2년 가까이 미군부대를 따라 다니다가

복학할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교장으로 계시든 고모부님 덕으로 Y고 2학년에 편입을 하였다. 친구를 만들기도 힘든 나이였다. 대구에 하숙할 형편도 아니고, 매일 시간을 지키기를 거부하는 기차 편으로 통학을 하였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6시면 집을 나가야 하였다. 어머니는 5시전에 일어나셔서 점심도 먹지 않으려하는, 이런 나를 위하여 매일 김밥을 싸 주셨다.

점심 시간이면, 가까운 친구도 없든 나는 Y학교 옆 화장터 가까운 보리밭둑에 혼자 앉아서, 이 점심을 생각 없이 날마다 먹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난 뒤에 어느날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다.

지금도 그렇지만, 오랜 동안 나는 김밥을 먹기가 싫어졌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나이 들고, 나 같은 아들과 나 같은 손자를 보면서, 지금은, 나는 김밥을 입에 물면 가슴이 매인다.

내일은 어머니날이다. (2004)

편집후기

지난 1년 동안 2번의 회지를 발간하게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글을 주시고, 도움말을 주셨든 동창분들과, 그렇게 함께 살아오신 모든 사모님들에게 드리는 감사를, 위의 글로 대신한다. (이상국)

60년도 Web: <http://lee-ny.com>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출판일: 2007년 11월 15일
편집 위원: 노재문, 최중식, 이상국

발행인: 박대선
E-mail: tchung305@aol.com

총 무: 정인국
E-mail: davidigchung@hotmail.com

편집인
Sang Gook Lee, M.D.
Tel: 914-723-7221
E-mail: sam@lee-ny.com
Web: <http://lee-ny.com>